

‘주체의 언어리론’을 통해 본 메타언어학으로서의 사회언어학이라는 가능성*

김병문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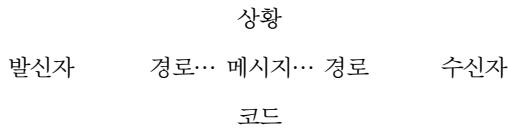
Kim, ByungMoon. 2020. "A Review of North Korea's so-called 'The Subject's Linguistic Theor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8(1). 55~80.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Subject's Linguistic Theory», the 1st volume of the Linguistics Collection, published in 2005 by the Institute of Linguistics at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Linguistics Collection was published with the aim of summing up the achievements of the linguistics research conducted by North Korea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fact that «The Subject's Linguistic Theory» was selected as the 1st volume of this series means that this field is the best manifestation of the nature of North Korean linguistics. This study aims to see how North Korea's language perception differs from or same as ours, and eventuall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utual communication of linguistic studies conducted in the South and the North. In section 1, it explains the overall purpose of the study, and in section 2, it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North's linguistic theory, called "The Subject's Linguistic Theory," has been formed, and in section 3, it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Subject's Linguistic Theory» (2005), published as part of the Linguistics Collection. In section 4, we attempt to present the necessity of meta-linguistics and the role of social linguistics through the theoretical questions that this 'The Subject's Linguistic Theory' poses to us.

Keywords: The Subject's Linguistic Theory, language perception, North Korean linguistics., meta-linguistics, social linguistics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1. 들어가는 말

가라타니 고진은 《탐구1》에서 공통의 ‘언어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수라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화(dialogue)’가 아니라 ‘독백(monologue)’이라고 한 바 있다. 즉 나와 게임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야 비로소 ‘대화’라 할 만하며, 반면에 규칙을 공유하는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결론이 예정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는 언어학은 대개 ‘독백’의 언어학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나의 언어공동체가 음운론적인 것이든 형태통사론적인 것이든, 아니면 의미론적인 것이든 일정한 규칙을 공유한다는 가정 하에서 언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언어학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사소통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 한 ‘독백의 언어학’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즉 말하는 이가 어떤 메시지를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규칙에 맞추어 코드화(encoding)하고 이를 특정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면 듣는 이는 이를 역시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규칙에 맞추어 탈코드화(decoding)하여 그 메시지를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위의 그림이 보여주는 바이다. 이는 물론 언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언어학에서 다루는 각종 층위의 규칙들은 이러한 의사소통 모델에 특히 부합한다. 예컨대 ‘국어문법’은 그 ‘국어’를 말하는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규칙을 음운과 형태와 통사, 그리고 의미의 차원에서 기술한다. 그런데 문체는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규칙으로서의 이 ‘국어문법’이 결코 균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과 계층, 연령, 성별 등의 차이는 ‘국어문법’이 기술되는 각각의 레벨(음운/형태/통사/의미)에서 제각각의 변이를 만들어내기 일쑤이다. 물론 ‘국어문법’은 이러한 변이들에 대해 방언, 속어, 비표준어라는 딱지를 붙이는 손쉬운 방법을 취하곤 한다. 딱지가 붙는다고 이 변이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공적 영역, 그 중에서도 특히 글쓰기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배제의 메커니즘은 균질적 ‘국어문법’이 실현되는 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모델이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와의 대화를 상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국어’라는 단어 자체가 타자를 전제하지 않은 ‘우리만’을 염두에 둔 말일 수 있다. 따라서 방언과 속어라는 딱지를 붙여 결국 그들을 ‘국어’에 동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이겠거니와, 그 못지않게 문제적인 것은 두 개의 ‘국어문법’이 만났을 때이다. 만약 남북의 평화공존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국어문법’이 다른 ‘국어문법’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가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공존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필요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언어 인식의 면에서 남과 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이른바 ‘주체의 언어리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를 통해 메타언어학으로서의 사회언어학의 필요성,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주체의 언어리론’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언어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언어학전서의 하나로 출판된 《주체의 언어리론》(2005)의 내용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이 《주체의 언어리론》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들을 통해 메타언어학의 필요성과 사회언어학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체의 언어리론’ 형성사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이른바 ‘주체의 언어리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1996년 펴낸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와 사회과학원에서 1999년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를 주로 참조하기로 한다. 북한의 조선어 연구가 크게 보아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¹⁾ 양 기관에서 당시까지 북한 학계가 이룬 조선어 연구 성과를 총 정리한 이 문헌들을 검토하는 것은 여러 모로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우리가 주요한 텍스트로 삼는 조선어학저서의 《주체의 언어리론》은 이들 문헌보다 늦은 2005년에 출간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의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전사(前史)로서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가 박재수의 단독 저서인 것에 비해,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는 17명의 필자가 각 분야를 분담하여 집필하고 이를 김영황과 권승모가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언어리론’과 연관된 내용은 박길만이 집필한 <언어리론연구사>이다.

2.1. 김일성대학 쪽의 기술

박길만(1996: 52~53)은 해방 후 북한의 언어 이론 연구사를 ‘1945~1967, 1968~1980, 1981~1995’와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선진적인 언어 이론을 적극 받아들여 언어의 본질과 언어 구조, 언어의 기원과 발전, 언어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반 언어 이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 언어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언

1) 간노 히로오미(1997: 368)는 이에 대해 북한 문법에 이른바 ‘김대 문법’과 ‘과학원 문법’이라는 두 가지 계통이 있으며 ‘과학원 문법’이 ‘김대 문법’을 수용해 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박길만(1996)에 제시된 해당 시기의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송서룡, <언어의 사회적 성격>, 《조선어학》 1964년 2호; 송서룡, <언어의 사회적본질에 관한 일부 언어학자들의

어가 사회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임을 강조하고 언어의 자율적 성격을 강조하는 ‘부르쥬아언어학의 반동성’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때의 사회성이란 언어가 ‘사상교환, 상호 이해, 교재의 수단’으로 복무하는 투쟁과 사회 발전의 무기’임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란 ‘통신적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투쟁의 무기’라는 표현을 논외로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의 사회성과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언어의 사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언어의 특성은 언어 이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 즉, 박길만(1996: 55~56)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의 언어학계에서는 내적 요인에 의한 언어 발전만을 강조하는 것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언어 발전이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씨족언어 → 종족언어 → 준민족적 언어 → 민족언어’의 발달은 전적으로 외적 요인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므로 언어 내적 사실만으로는 그 과정을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언어의 본질’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남쪽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언어의 변화나 발전이라는 과정에 언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외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언어의 역사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 《조선어학》 1964년 1호; 김영황, 〈남조선의 부르쥬아언어학과 그 반동적조류〉, 《조선어학》 1965년 4호; 송서룡, 〈언어의 역사적발달〉, 《조선어학》 1964년 4호; 송서룡, 〈언어학의 연구방법(1)~(4)〉, 《조선어학》 1964년 6호~1966년 4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박길만(1996)에서 소개된 해당 시기의 언어 이론 분야 저술이 대부분 송서룡의 업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송서룡은 이미 우리 학계에 송서룡(1957), 〈소베트언어학과 해방 이후 조선언어학발전에 준 그의 영향〉, 《조선어문》6; 김수경·송서룡(1962), 《현대조선어》3,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정렬모·송서룡(1963), 《조선어문법2(문장론)》, 과학원출판사; 김수경 외(1964), 《조선어문법》, 고등교육도서출판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영근(1992), 최경봉(2009), 김병문(2016) 등 참조. 1950~60년대 송서룡이 발표한 업적들로 미루어보아 그가 북한의 초기 문법 및 언어 이론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판단된다.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시기인 1968년에서 198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박길만(1996: 59)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언어이론연구에서 큰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³⁾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 ‘언어의 민족적 특성, 언어의 발전, 언어 사용의 혁명적 기풍’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들이 대체로 김일성의 사상 이론적 지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주체사상에 입각했을 때 우리의 민족적 특성과 고유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 이때 언어학의 각 분야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게 되어, 결국 ‘어음 구성과 어음 연쇄, 어휘, 문법’의 각종 특징은 조선어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이 되고, 이러한 언어의 민족적 특성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적 감정과 심리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의 발전’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은 북한 언어 이론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 발전에는 내적 외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식의 기술에 머물던 종래의 태도에서 언어학은 언어를 목적의식적이고 합법칙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데 직접 관여하고 복무해야 한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이 시기에 벌어지는 광범위한 어휘정리가 바로 그러한 언어 이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물론 말다듬기로 불리

3) 이 시기의 주요한 성과로 박길만(1996)이 소개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박재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언어의 민족적 특성에 관한 독창적사상>, 《문화어학습》 1975년 3호; 엄병섭, <어학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문화어학습》 1975년 3호; 정순기(197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어학혁명에 관한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발표 10돛기념논문집》(이하 《10돛기념논문집》으로 줄임),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이론》(1975), 사회과학출판사; 박재용(197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심병호(1976), <말과 글을 올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한 독창적사상>, 《10돛기념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이론》(1975), 사회과학출판사; 리근영(1976), <어휘정리사업은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심과업>, 《10돛기념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문영호(1976), <사회주의적민족어건설시기 언어규범화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10돛기념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는 이른바 언어 순화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 시기의 어휘정리는 개별 어휘에 대한 순화를 넘어서 조선어를 자신의 민족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구현한 정연한 체계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⁴⁾ 그리고 어휘정리 사업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두한 것이 ‘단어조성론’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였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⁵⁾ 남측의 ‘조어론’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북한은 ‘단어조성론’은 새로운 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박길만(1996: 67)이 “일반언어리론에 대한 연구가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벌어진 시기”라고 한 1980년~1995년의 기간에는 언어생활, 언어사용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부각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고찰, 자연언어와 구별되는 인공언어에 대한 관심, 응용언어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주체의 언어리론’을 처음으로 서명에 직접 표명한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라는 단행본이 출간되는 시기임에도 박길만의 글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박재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99)에서 ‘주체의 언어리론’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되는 여타의 단행본들 역시 전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더 의아한 것은 이들 단행본이 박길만의 글에 수록된 참고문헌에는 거의 대부분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박재수가 ‘주체의 언어리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한 단행본들을 박길만 역시 언어 이론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체의 언어리론’ 자체가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보다는 사회과학원 쪽에서 더 강조하는 분야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터이나⁶⁾

4) “말다듬기 사업의 보다 높은 단계인 어휘정리사업은 언어정화사업과 달리 언어분야에서의 일대 혁명으로서 조선말을 고유어에 근거한 하나의 체계로 만들 것을 자기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박재수(1999: 73).

5) 북한에서 ‘단어조성론’이 성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고영진(1997) 참조.

6) 박길만(1996)에서는 아래의 2.2.절에서 언급할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 《친애하

선부른 추측은 삼가고 아래에서는 사회과학원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박재수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보겠다.

2.2. 사회과학원 쪽의 기술

박재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는 ‘제Ⅰ편 언어실천과 언어학’과 ‘제Ⅱ편 언어학의 건설과 여러 분과들의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체의 언어리론’이 다루어지는 것은 제Ⅱ편의 ‘제1장 언어학의 기본분과인 언어리론의 연구’에서이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 이론 연구의 첫 시기를 박재수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라고 보는데 “로동계급의 선진적인 언어리론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힘”을 쏟았다는 이때를 대표하는 저술로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1962)를 꼽는다. 박재수에 따르면 이 책은 대체로 해방 후의 ‘문맹 퇴치, 문자개혁, 언어정화’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둔 조선로동당의 언어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심은 아직까지 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에 주목하는 부분에도 그가 특별한 언어리론을 제시했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그의 언어 사용이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정도이다(‘제3편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의 언어적특성’).

이에 비해 196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 언어 이론 연구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김일성이 각각 1964년과 1966년에 발표한 “고전적로작”〈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라는 것이다. 이 두 저작을 통해 언어의 사회적 본질, 민족어의 발전 방향과 발전의 중심지, 언어생활의 개선 방도와 같은 “언어문제들에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다는 것이 박재

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언어리론연구》(1990) 등의 단행본들이 다루어지지 않지만, 박길만(1996)과 같은 책에 실린 권승모(1996)에서는 이러한 책들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나 연구사적인 의의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목록만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다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학에 대한 지도를 대체로 언어 이론이 아니라 언어 정책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른바 ‘고전적 로작’들이 모두 권승모(1996)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1999: 114)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 시기 언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그가 꼽는 것이 그와 같은 김일성의 글을 기반으로 하여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언어사상을 전면적으로 해설”하였다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1971)이다. 실제로 이 책을 검토해 보면 머리말에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창시”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언어사상은 그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언어학분야에 구현된것”이라며 이 책의 내용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언어 이론에 적용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술의 내용 역시 언어의 본질과 민족적 특성의 관계, 민족어의 발전 방향과 방도, 언어사용의 올바른 기풍 등 이후 ‘주체의 언어이론’이 담고 있는 내용을 거의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1971)보다 앞서는 책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1970)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일관된 관점으로 씌여진 단행본이 아니고, 비록 필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5편의 논문을 묶은 논문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책의 맨 앞부분에서 머리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편집부로부터>라는 글에서는 “이 논문집에는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언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언어정책의 깊은 력사적뿌리를 연구하고 학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몇편의 소논문들을 묶었다.”고 하여 이 책의 성격을 김일성의 언어사상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⁷⁾ 기본적으로 해방 후 북한의 각종 언어정책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비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1971)에 실린 글들은 그러한 언어정책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7)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민족어를 지켜내고 그것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항일무장투쟁시기 민족어교육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항일무장투쟁시기 언어실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발전풍부화된 우리 말 어휘>,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발전풍부화된 우리 말 표현>

하는 점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머리글> 등을 검토해 보아도 이 글이 논문 집인지 아니면 일관된 관점으로 기술된 단행본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체제로 미루어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1970)과 마찬가지로 논문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앞서 언급한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는 훨씬 체제가 정비된 단행본임을 알 수 있는데,⁸⁾ 그러한 사실은 《주체의 언어리론》(2005)를 포함하여 이들의 목차를 비교하면 여실히 드러난다.

- 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1971) 목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언어분야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 전통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령도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언어사상의 빛나는 승리
- ②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 목차
 총론. 주체의 언어리론의 창시 / 제1장 언어의 사회적본질 / 제2장 언어의 발전 / 제3장 언어발전의 터 / 제4장 어휘정리 / 제5장 언어규범화 / 제6장 언어생활의 올바른 기풍 / 제7장 글자
- ③ 《주체의 언어리론》(2005) 목차
 총론 / 제1장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리론 / 제2장 민족어고수에 관한 리론 / 제3장 언어발전에 관한 리론 / 제4장 사회주의적민족어의 본보기인 평양문화어건설에 관한 리론 / 제5장 언어생활에 관한 리론 / 제6장 글자의 부족점을 고치고 발전시킬데 대한 리론

①이 김일성 언어 사상의 기원과 그 실체, 그리고 그에 입각한 김일성의 ‘령도’와 그에 따른 성과를 기술하는 식이었다면, ②는 이를 좀 더 이론화하

8)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에는 필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박길만(1995: 81)과 박재수(1999: 119)에서 모두 이 책의 필자를 김정휘와 정순기로 명시하고 있다.

여 언어의 본질, 언어의 발전, 민족어 발전의 중심지, 어휘정리, 규범화, 글자 문제 등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③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언어 정책의 기원을 항일 무장 투쟁으로 소급해서 해석하는《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1970), 그리고 정책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 실현 과정과 결실까지 다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언어사상》(1971) 등의 논문 모음집을 넘어서서, 이제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에 오면 하나의 단행본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개별 항목들이 서술되며 이는 현재까지도 큰 수정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재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전반기가 언어 이론 연구의 새로운 전환기였다고 그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를 꼽고 있다.

그런데 박재수(1999)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전반기를 언어 이론 연구의 또 다른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한 이유는 이때가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원수님께서 심화발전시키고 계시는 주체의 언어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있게 연구해설”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의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발전풍부화시킨 주체의 언어리론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깊이있게 해설한 도서”라는 것이다(박재수, 1999: 118~119). 그렇게 되면 ‘주체의 언어리론’ 형성과정에서 김정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앞선 언어 이론 분야의 업적들에 비해 이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가 훨씬 잘 정돈되어 있으며 그 체계가 이후의 연구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를 검토해 보면 이 책 전반에 걸쳐 김일성의 저작이 인용되고 그의 교시가 수없이 등장하지만 김정일의 이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위에서 목차를 보인 《주체의 언어리론》(2005)에서는 총론에서부터 ‘주체의 언어리론’에서 김정일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60년대 중후반 주체사상의 성립 이후 70년대까지는 ‘주체의 언어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주체

의 언어리론 연구》(1982)이라는 단행본에서 이르러 그 내용과 형식이 일차적으로 완성되었다면, 1990년대에는 김정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장에서는 ‘주체의 언어리론’에서 김정일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조선어학전서의 제1권 《주체의 언어리론》(2005)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주체의 언어리론》(2005) 분석

2005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조선어학전서의 제1권으로 출판한 《주체의 언어리론》은 저자가 최정후(원사, 교수, 박사), 심사자가 정순기(교수, 박사)와 김성근(부교수, 박사)으로 되어 있다.⁹⁾ 총론에 이어 6개의 장과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앞서 살펴본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두 책을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체의 언어리론》(2005)이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와는 달리 언어 이론에 대한 김정일의 역할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실은 이 책의 총론에 제시된 ‘주체의 언어리론’에 대한 규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주체의 언어리론’은 첫째 “우리의 시대, 자주시대가 언어분야에 제기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시된 독창적인 언어리론”이며, 둘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기초로 하고있는 독창적인 언어리론”이고, 셋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언어리론”이라고 하여 김정일의 이론적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5~10쪽).

‘주체의 언어리론’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언어학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9) 언어학전서 1권으로 출판된 이 《주체의 언어리론》보다 앞선 1999년 사회과학원에서 출판된 《주체적언어리론 연구》가 있는데, 이 책의 필자는 최정후와 박재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제2장~6장의 내용은 《주체의 언어리론》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제1장은 ‘언어학설사개관’이다). 최정후가 이 두 책 모두의 저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정해 본다면, 언어학전서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언어리론 연구》의 제1장을 덜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손질하여 《주체의 언어리론》을 출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는 설명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김정일의 역할이 분명히 언급된 것은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체의 언어리론’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김정일의 역할이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전 시기에는 김일성의 어록이나 저작만이 인용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김정일의 저작이 인용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심지어 이 《주체의 언어리론》(2005)에서 처음으로 인용되는 저작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의 저작인데, 총론에서 ‘주체의 언어리론’을 규정하는 첫 번째 사항, 즉 ‘현 시대가 언어학에 제기하는 요구를 반영한 언어리론’이 ‘주체의 언어리론’이라는 주장을 하며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1992)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역사의 새 시대이다(《주체문학론》, 4쪽).

‘우리 시대’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라는 위의 언급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나 《주체문학론》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 독일 통일과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북한 나름의 대응방식과 관련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¹⁰⁾ 실제로 총론에서는 이 ‘자주의 시대’가 언어 분야에 제기하는 요구를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부터 민족어를 고수하고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7쪽), 이를 과거의 문제로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어 말살 정책이지만, ‘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서구 제국주의 문화의 민족어 침투라는 현재적인 문제가 된다.

10) 서동수(2003)에서는 《주체문학론》이 과거의 단절과 지속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1990년대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임옥규(2011)에서 역시 《주체문학론》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이전의 문예이론을 정리하고 확대한 것이며, 시대적 위기 속에서 북한의 자구책을 문예적인 실천 강령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일의 저작은 이와 같이 《주체의 언어리론》 전편에 걸쳐 매우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김일성 못지않게 김정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80년대에 나온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가 주체사상의 전면적으로 작용되어 이론적 안정성을 이룬 책이라면 이 《주체의 언어리론》(2005)은 거기에 김정일의 색채를 대폭 가미한 저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아도 김정일의 영향으로 보이는 변화가 다소간 감지된다. 예를 들어 ‘제1장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리론’에서는 언어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상호 의사소통하는 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18쪽), 이는 이전 시기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주체의 언어리론》(2005) 역시 언어가 ‘민족의 형성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간 생활(의사소통)의 수단’과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무기’에 이어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어 그 비중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김정일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1990년에 출판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언어리론 연구》의 강조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이 책에서 역시 제1장 ‘언어’에서 언어와 언어행위의 본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데서 찾고 있으며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라는 점은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제시하고 있다. 언어의 통신적 기능, 즉 의사소통의 기능을 민족 형성의 기능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언어리론》(2005)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이전 시기의 저작들과 달리 《주체의 언어리론》(2005)에서는 ‘언어생활’ 혹은 ‘언어행위’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제5장 언어생활에 관한 리론’에서는 ‘1. 언어생활의 본질과 특성’, ‘2. 언어생활의 두 가지 형식’이라는 절이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전 시기의 저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리고 언어생활의 본질이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서로 교제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데(191쪽), 언어의 본질을 논하는 데서와 마찬가지로 민족보다

는 개인 상호간의 의사소통, 교제와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이 책이 ‘언어생활’과 ‘언어행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앞서 언급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언어리론 연구》(1990)에서 ‘언어의 본질’ 외에 언어행위의 본질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었다는 점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언어생활이나 행위를 개인들의 상호 교제와 의사소통의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이전 시기부터 기술되어 오던 언어생활에 관한 다른 서술들(언어생활에서의 주체 확립, 문화성 보장, 통속성 보장) 등도 민족적 맥락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언어생활의 특성으로 민족적 특성 외에 개별 사람들마다 달라지는 ‘개성적 특성’,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적 특성’을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것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¹⁾

요컨대 이전 시기의 관련 저작들과 달리 《주체의 언어리론》(2005)에서는 언어나 언어행위의 본질 논하는 데서 민족의 문제보다는 개인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인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체의 언어리론’ 내에서 민족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상호 교제와 의사소통을 주체사상의 맥락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런 행위는 각자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되고, 이때 관건이 되는 것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기 때문이다. 즉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구속의 상황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온전히 실현해 나갈 수가 없다는 논리이다. ‘제1장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리론’에 이어 ‘제2장 민족어고수에 관한 리론’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민족어 고수’는 ‘일체의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

11) 이와 관련하여 서동수(2003: 69~70)에서는 “근본적인 측면은 고수되고 있으나 창작에 있어 기법과 소재의 다양성, 개성의 중시”라는 점이 90년대 이후 북한 문학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의 《주체문학론》(1992) 이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언어리론’의 새로운 양상을 해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을 것 같다.

말살 정책으로부터’도 민족어를 지켜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민족어 고수’에 관한 장의 내용은 남쪽의 인식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일제 시기 언어적 식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은 차치하고라도,¹²⁾ 말에 ‘민족의 뉘’이 담겨 있고 따라서 민족어에 그 민족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식의,¹³⁾ 남쪽의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 표방하는 언어관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의 뉘’을 운운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 대목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 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어를 지켜내야 한다는 인식 역시 영어에 의한 ‘국어의 오염’을 우려하는 남쪽의 언어 순화론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 정치적인 식민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상적 문화적 침투를 일삼은 결과 ‘남조선에서의 우리말을 잡탕말, 혼혈어로 변질 시켜 놓았다’는 것인데, 세계화 시대를 앞세워 영어를 공용어화 하려는 여러 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¹⁴⁾ 역시 남쪽에서도 낯설지 않은 주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시하는 대안은 ‘미제와 앞잡이들의 말살 정책을 짓부시고 민족어의 동일성, 고유성을 철저히 고수 보존하자’는 것이다. 사실 언어가 그 민족(의 뉘/얼)과 동일시된다면 그것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외부의 오염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민족과 언어, 순수와 오염 등을 매개로 남과 북의 언어 인식에 유사성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어의 고수와 보존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수령과

12) “우리 나라를 강도적방법으로 강점한 일제 침략자들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을 영원히 없애고 우리 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역사상 류례없는 폭압정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우리 말과 글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었다.”(46쪽)

13) “민족어에는 민족의 뉘이 깃들어있고 고유한 민족성이 체현되어 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어를 빼앗기게 되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된다.”(50쪽)

14) “이자들은 세계의《일체화》, 《국제화》 시대에는 정보전달에서《언어적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영어를 《국제적언어》로 사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영어를 《국제공용어》로 만들려는 미제의 책동은 다른 나라의 민족어를 점차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흉계이다.”(58쪽)

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 언어를 목적의식적이고 합법칙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그 모범이 바로 현재의 평양말이라는 평가는 《주체의 언어리론》(2005)이 제시하는 여러 논점 가운데 남쪽의 언어학자들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언어발전이란 주체사상의 기본 이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인민대중은 합목적적인 인식 활동과 실천 활동을 통해 사회와 언어의 발전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언어 발전에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언어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다. 우선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의 권력과 생산수단이 착취계급의 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인민대중이 언어발전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창조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령과 당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평양 문화어가 민족어 고수와 발전의 본보기가 되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주체의 언어리론’이 취하는 큰 논리적 흐름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언어는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과정인 사회적 교제의 힘 있는 수단이며 민족 형성의 중심 요소이다(‘제1장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리론’).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과정을 방해하는 환경, 즉 외세의 억압과 침탈로부터 민족어를 고수해야 한다(‘제2장 민족어고수에 관한 리론’). 그리고 그러한 민족어 고수에서 더 나아가 당과 수령의 지도를 받아 언어를 합법칙적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데(‘제3장 언어발전의 법칙에 관한 리론’) 그 모범이 바로 해방 이후 문맹퇴치, 한자폐지, 어휘정리, 언어규범화 등을 통해 새로이 태어난 평양의 문화어라는 것이다(‘제4장 사회주의적민족어의 본보기인 평양문화어건설에 관한 리론’). 《주체의 언어리론 연구》(1982)에서는 ‘제3장 언어발전의 터, 제4장 어휘정리, 제5장 언어규범화’와 같이 장을 달리해서 기술되던 내용들이 《주체의 언어리론》(2005)에서는 하나의 장(제4장)으로 묶였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해방 이후 이루어진 모든 언어정책들을 문화어 건설로 귀결시킨 셈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에서 정리한 ‘주체의

언어리론'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이론적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주체의 언어리론'이 제기하는 질문들: '메타언어학'의 필요성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남과 북에서 이루어져온 언어 연구의 상호 소통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주체의 언어리론'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은 남쪽의 언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북한 언어학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언어학의 소통이란 문제는 문법 이론의 각 영역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남쪽이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 이래로 최소한 학교문법에서는 용언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데 비해, 북쪽의 문법에서는 용언의 활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용언 어미와 체언에 붙는 조사의 문법적 지위를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점은 예컨대 '통일 국어문법'을 구상한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¹⁵⁾ 그러나 문법 개념이나 이론의 문제를 넘어서는 언어 인식의 문제는 이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아마도 우리의 언어 연구의 풍토에서는 '주체의 언어리론'이 제기하는 각종의 질문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의 언어리론'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실현하는 데 쓰이는 힘 있는 수단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외세의 억압으로부터 민족어를 고수해야 하는 기본 이유가 되며, 더 나아가 언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언어에 인위적 개입을 가해야 하는 근거 역시 언어의 본질로부터 찾아진다. 심지어

15)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규범문법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는 김병문(2016) 참조. 또 김병문(2019)에서는 이와 같이 남과 북의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문법에서의 남북연합, 또는 연방제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북쪽에서는 ‘단어조성론’¹⁶⁾이라는 학문 분야가 정립되기도 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물론 이 논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언어가 민족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명제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쪽의 언어학은 이러한 논리 전개에 대응할 만한 특별한 이론적 개념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언어의 본질에 대해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상식적 대답 외에는 언어학의 어느 분야에서도 학문적 이론적 해명을 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것은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¹⁷⁾ 더 나아가 언어 발전의 합법칙성을 이해하고 이에 입각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언어의 변화 발전에 언어학이 복무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언어가 과연 발전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지, 언어 연구는 그러한 언어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남쪽의 언어 연구자들은 아마 이런 문제 설정이나 논점 자체를 수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학문적이고 이론적 대응이 준비되어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어떠한 응답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쩌면 언어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발본적인 성찰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주체의 언어이론’이 제기하는 질문은 사실 언어 연구의 대상인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어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어서 다분히 메타(meta)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예컨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언어의 각 레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거듭된다고 해도, 그리하여 그 최

16) 물론 예컨대 ‘전문용어학(terminology)’과 같이 언어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실천적으로 언어 현실에 개입하는 분야가 남쪽에서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이 언어의 본질과 언어학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언어학의 하위 부류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7) 이러한 기술이 남쪽에는 언어관이나 언어철학, 언어사상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남쪽의 언어학 내에서는 이러한 이른바 메타언어학적 주제를 다룰 만한 분야 자체가 없으며 또 그에 대한 진지한 언어학적 검토도 찾아보기 없다는 점이다.

종 결과들을 모두 수합한다고 해도 답을 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오히려 이는 언어학의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 언어학을 성립하게 하는 기본 가정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소쉬르는 《일반 언어학강의》에서 언어학의 대상인 언어는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면이 있다고 한 바 있다.¹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활동의 여러 국면 중에 의식적인 노력 끝에 특정한 성질의 것만을 가려낸 것이 바로 ‘랑그’이고 소쉬르에게는 이것만이 언어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언어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사실 언어학이 기반하고 있는 기본 가정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는 온전한 해답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랑그라는 개념의 출현이 ‘국어(national language)’의 신화가 정점에 이른 시기인 20세기 전환기 동안에 일어난 것이 우연이었을까?”라는 페어클라우프(2011: 59~61)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치적으로 규정된 넓은 영토에서 이루어진 언어적 통일이나 표준화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특징이며, 언어학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 특정 시기에 독특한 사회적 조건이 빚어낸 산물”로서의 ‘영어’, 또는 ‘독어’ 등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어권 연구자들이 마치 “표준어가 전체 국민의 언어이고 모두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물론 영국의 영어 연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근대 언어학이 대상으로 삼는 ‘언어’가 이와 같이 국민국가에서 이루어진 통일화와 표준화의 산물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언어 연구는 그 역사적 산물로서의 언어가 특정한 역사 사회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혹은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해준다는 것이다. 언어학에 대한 발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스야 게스케(2016)는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전체론적인 언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전체론적인 언어상이란 특정한

18) “여타의 과학은 그 연구 대상이 미리 주어져 있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분야는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상이 관점을 선행하기는커녕, 관점이 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 인상이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1990: 19)

언어, 즉 “X어’라는 언어 전체가 불가분의 통일체를 이루고, 그 근저에는 일관된 원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언어에 대한 이런 관념이 출현하는 시기는 근대 유럽의 국민어 형성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각각의 언어가 고유의 영토에 토착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형성되는 것이라며 그 예를 프랑스 혁명기에 제작된 언어지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거주하는 인민과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의식이 특정 언어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인식하게 해 주었으며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대단히 근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가쇼야 게스케, 2016: 50~51, 249~257). 이와 같은 설명은 예컨대 주시경이 《국어문법》(1910)의 서문에서 ‘하늘이 일정한 지역에 특정한 종(種)의 사람을 살게 하고 그에 합당한 ‘국어’를 말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독립의 표가 된다’고 하여 ‘영토=인민=언어’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이때의 전체론적 언어상은 인간의 발화 행위와는 별개로 특정한 ‘X어’가 따로 존재한다는 인식의 바탕이 된다.

이연숙(2006: 15~16)이 지적한 이른바 ‘말의 소외’라는 현상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언급일 것이다. 즉, 말하는 행위에 앞서 어떤 ‘언어’가 실재하고 있어서 사람은 그 ‘언어’를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을 말하는 행위와 사람으로부터 분리해 낸다는 점에서) ‘말의 소외’라고 부를 만한 근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의 소외’라는 현상으로 인해 비로소 “언어를 민족정신의 정수로 간주하는 언어 내셔널리즘과 언어를 어디까지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언어도구관”이 근대의 국민국가 건설과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 인식은 사실 동일한 시대의 “쌍생아”라고 설명한다. 즉 언어를 민족의 얼을 담는 그릇으로 보든, 아니면 의사소통의 필요에 의해 가져다 쓰는 도구로 보든 이들은 모두 발화상황이나 맥락과는 구별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언어를 가정해야 가능한 인식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들은 모두 기존의 언어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19) 이와 관련된 주시경의 근대적 언어 인식에 대해서는 김병문(2013: 158~176) 참조.

있는 ‘언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언어학의 기본 가정이나 토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주체의 언어 리론’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이론적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언어, 그리고 언어학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은 아니다. 언어의 내적인 요소나 그들 간의 관계를 관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의 기본 가정이나 토대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언어학’이라고 부를 만한 영역이 될 것이다.²⁰⁾ 그런데 사실 이른바 순수언어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하는 사회언어학적 연구들은 대체로 기존 언어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기존 언어학의 “기본전제와 이론, 방법 등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회언어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의 하위분야로 보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황적륜, 2010: 16). 앞서본 ‘언어’라는 개념에 대한 페어클라우프의 비판적 언급 역시 기존의 랑그 중심의 언어 연구에서 벗어나서 담화라는 단위가 언어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화행, 담화 등의 단위는 발화에 앞서 존재하는 가상적인 존재로서의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물론 사회언어학의 학문적 위상을 언어학에 대한 비판적 극복이라는 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언어학은 인류학이나 방언학, 그리고 사회학 등과 같은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과와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

20) 밀카 이비츠(1982: 167~168)에서나 게르하르트 헬비히(1992: 193~196)와 같은 언어학사 서술에서는 대체로 ‘메타언어학(metalinguistics)’이 사피어로 소급되는 인류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 혹은 거시언어학(macrolinguistics) 등과 관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호친(2006: 244)은 “순수언어학을 재고하고 초월하여 그 절차를 반성하게 할” 새로운 분과학문으로 ‘메타언어학’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메타언어학’이라는 용어는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

21) 워드워프(1994: 159) 역시 ‘언어=공동체’라는 등식을 통해 ‘국민성’을 표현해 온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로 대처하는 과정에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이다.²²⁾ 그러나 언어와 관련된 각종의 사회적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기존 언어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기존 언어학이 언어로 인한 사회 문제를 ‘응용언어학’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내적 규칙의 해명만을 과제로 삼는 것은 그들이 대상으로 삼는 ‘언어’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역사적 소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언어’ 자체가 특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의 산물임에 주목하게 된다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가 아니라 ‘언어’ 자체의 사회성, 정치성이 될 것이다. ‘언어’ 자체의 사회성, 정치성에 대해 논할 수 있을 때, ‘주체의 언어리론’이 제기하는 각종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능히 응답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5. 나가는 말

2005년 ‘조선어학전서’의 1권으로 출판된 《주체의 언어리론》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그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언어를 목적의식적이고도 합법칙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언어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다루는 이 《주체의 언어리론》이 취하는 기본 관점을 아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언어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책에서는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언어를 ‘구조적전일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언어는 구조적인 측면 외에 사회적인 측면 또한 있어서, ‘어휘론, 의미론, 어음론, 문법론’ 등이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을 다루는 분야라면 ‘주체의 언어리론’은 언어의

22) 이에 대해서는 김하수(1990), 조태린(2005), 김하수(2014) 등 참조.

본질과 그 발전 방향, 방도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룬다는 것인데,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독립되어 존재하는 그 어떤 실체로 대한다는 점에서만큼은 우리의 언어학이 취하는 관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남쪽의 언어학이 (언어의 사회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만을 다루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주체의 언어론’에 어떠한 이론적 응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남북 언어학의 뜻하지 않은 일치점, 즉 언어를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극복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관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칫 언어학이 대상으로 삼는 ‘언어’가 역사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일정한 공동체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이를 은폐하는 역할을 언어학이 의도치 않게 떠맡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온 ‘국민’이 공유하는, 또는 그해야만 하는 ‘국어문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편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의 근원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와 다양성을 보이지 않게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며 베네딕트 앤더슨이 중요하게 지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실재하는 착취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민족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수평적 동료 의식’이었다. ‘주체의 언어론’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남쪽의 언어학 역시 그 ‘상상의 공동체’의 형성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성찰의 대상이 될 것인바, 이 역시 ‘메타언어학’이 검토해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1970), 사회과학출판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언어사상》(1971),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의 언어론 연구》(1982), 과학 사회과학출판사.²³⁾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언어리론연구》(1990),²⁴⁾

가라타니 고진(1998), 송태욱 옮김 《탐구1》, 새물결.

가스야 게스케, (2016), 고영진·형진의 옮김, 《언어, 권력, 헤게모니 - 언어사상사적 접근》, 소명출판.

간노 히로오미(1997), <북한 문법학의 계보와 소련 언어학과의 관계(1945~1990)》, 《동방학지》 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게르하르트 헬비히(1992), 임환재 옮김, 《언어학사》, 경문사.

게리 솔 모슨·캐럴 에머슨(2006),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고영근(1992), <북한언어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제문제》, 《어학연구》 28-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고영진(1997), <북한 문법의 '단어조성론'의 성립 과정》, 《동방학지》 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권승모(1996), <조선로동당의 언어정책과 그 빛나는 실현》, 김영향 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김병문(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 -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김병문(2016), <북한의 규범문법 성립 과정에 관한 연구 - '자리토'와 '끼움토'의 설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병문(2019), <국어의 사상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동방학지》 18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병문(2019), <북한의 말다듬기에 대하여》, 《말과글》 159, 한국어문기자협회.

김영향·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김하수(1990), <사회언어학의 발전과 앞날의 과제》, 《연세》 30, 연세대학교《연세》편집위원회.

23) 이 책 자체에는 저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박길만(1996: 119)에서는 이 책의 저자를 김정휘와 정순기로 적시하고 있다.

24) 이 책 자체에는 저자와 발행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박길만(1996: 81)과 박재수(1999: 121)에서는 저자를 최정후로 적시하고 있다.

- 김하수(2014), <언어사회학이 지나올 길과 나아갈 길>, 《문제로서의 언어》 3,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먼 페어클라우프(2011), 김지홍 옮김, 《언어와 권력》, 경진.
- 로널드 워드워프(1994), 박의재 옮김,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 밀카 이비츠(1982), 김방한 옮김, 《언어학사》, 형설출판사.
- 박길만(1996), <언어이론연구사>, 김영황 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박재수(19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서동수(2003),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고찰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0권, 겨레어문학회.
- 이연숙(2006),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 임옥규(2011), <《주체문학론》의 이념과 창작방법>, 《남북문화예술연구》 8, 남북문화예술학회.
- 조태린(2005), <사회언어학의 기원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13-2, 한국사회언어학회.
- 최경봉(2009), <김수경(金壽卿)의 국어학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 최정후(2005), 《주체의 언어이론》, 사회과학출판사.
- 최정후·박재수(1999), 《주체적언어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페르디낭 드 소쉬르(1990),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강의》, 민음사.
- 황적륜(2010), <사회언어학의 기원과 성립>, 《사회언어학》 18-2, 한국사회언어학회.

김병문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교수)

pourm@yonsei.ac.kr

논문 접수일: 2020년 02월 10일

논문 심사일: 2020년 02월 19일~02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0년 03월 05일

www.kci.go.kr